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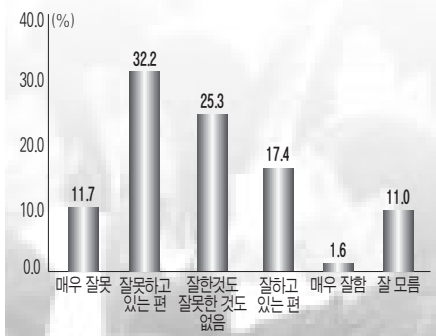
광주일보·KBC 공동 '2008 새정부 주요 정책' 여론조사

표 문화수도 조성위 폐지 반대 53% 찬성 9%

설문내용

- 이명박 새정부가 곧 출범합니다. 이명박 새 정부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1)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 2) 경제가 살아나겠지만 일자리는 많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3) 현재의 경제 상태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4)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다
- 이명박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매우 잘못하고 있다 2) 잘못하고 있는 편이다 3)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없다 4) 잘하고 있는 편이다 5) 매우 잘하고 있다 6) 잘 모르겠다
- 대확이 자율적으로 임시제도를 결정하고 운영하는 이명박 새정부의 '대입 자율화' 방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매우 반대 2) 반대하는 편 3)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4) 찬성하는 편 5) 매우 찬성
- 이명박 새 정부의 '영어몰입교육'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매우 반대 2) 반대하는 편 3)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4) 찬성하는 편 5) 매우 찬성
- 이명박 새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1) 지금 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2)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3) 지금 보다 더 좋지 않을 것이다 4) 잘 모르겠다
- 이명박 새 정부의 각종 위원회 축소정책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총괄 주관해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매우 반대 2) 반대하는 편 3)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4) 찬성하는 편 5) 매우 찬성
- 이명박 새 정부의 각종 위원회 축소정책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매우 반대 2) 반대하는 편 3)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4) 찬성하는 편 5) 매우 찬성
- 이명박 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영산강 대운하 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3) 잘 모르겠다
- 그러면 만약 영산강 대운하 건설을 한다면, 재정확보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1) 전액 국가예산으로 해야 한다 2) 국가예산과 민간자본이 공동 투자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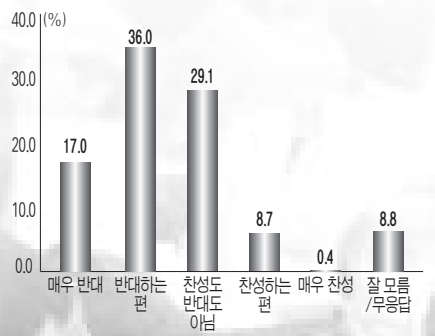
■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평가



■ 새 정부의 '영어몰입교육정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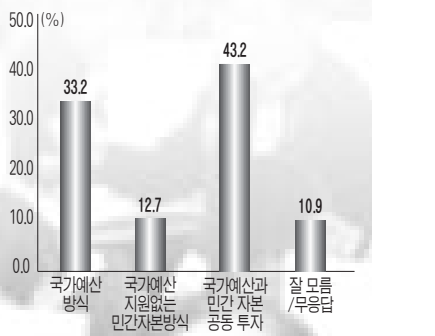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 폐지 평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폐지 평가



■ 영산강 대운하 건설 추진방향



광주일보와 KBC광주방송이 공동으로 한백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08 새정부 주요 정책 및 제18대 총선 관련 제1차 여론조사'에서는 광주·전남지역민들이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적지 않은 불만과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개월 앞으로 다가온 18대 총선과 관련하여는 대통합민주신당(이하 신당)과 민주당과의 통합, 그리고 현역의원 물갈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음으로 분석됐다. 이번 1차 여론조사결과를 '새정부의 정책평가'와 '18대 총선 전망' 등 2개 분야로 나눠 정리한다.

▲경제활성화 전망=지역민들은 '이명박 정부체제에서의 경제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 44.1%가 '현재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도 8.3%를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절반이 넘는 52.4%가 미래 경제를 부정적으로 내다본 셈이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는 답변은 19.5%. '경제는 살아나겠지만 일자리 창출은 불가'라는 응답은 22.2%로 집계, 이명박 정부에 대한 호남지역민의 경제활성화 기대치가 높지 않음을 보여줬다.

▲정부조직개편안 평가=새정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2.2%가 '잘못하고 있는 편'이라고 답했으며,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정부 조직 개편안 “잘 못” 44% “잘하고 있다” 19% 영어몰입교육 반대 58%... “지역발전특위 폐지 안돼”

도 11.7%를 차지,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가 43.9%에 달했다. 반면 '잘하고 있는 편'은 17.4%, '매우 잘함'은 1.6%로 집계돼 긍정적 평가는 19%에 그쳤다. 결국 이명박 새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잘못된 것으로 보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한 셈이다.

▲지역관련 위원회 폐지 평가=광주를 문화수도로 만들기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폐지기로 한 이명박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36%가 '반대하는 편' 그리고 '매우 반대'가 17%로 집계돼, 반대의견이 과반수를 넘는 53%를 차지했다.

특히 '찬성한다'는 의견은 8.7%에 불과,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다. 광주의 경우 '매우 반대'가 24%로 전남의 12.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문화수도가 건설되는 해당 지역의 관심도를 반영했다.

나후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51.1%를 차지, 폐지를

찬성하는 11.2%에 비해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영산강 대운하 건설=이명박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영산강 대운하에 대해서는 반대가 50.8% 그리고 찬성이 28.6%를 차지, 운하건설을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하는 의견보다 22.2% P가 더 높게 나타났다.

만약 운하가 건설될 경우 바람직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예산과 민간자본 공동투자방식'이라는 답변이 43.2%로 가장 많았다. '국가 예산만으로 해야한다'는 답변은 33.2%, '민간자본만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답변은 12.7%로 뒤를 이었다. '대운하를 계획이 얼마만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시되는 대목이다.

▲대입자율화 방침에 대한 견해=대확이 자율적으로 임시제도를 결정하고 또 운영하도록 하는 새 정부의 대입자율화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가 38%, 찬성

28%에 비해 10% P가 더 높았다. 특히 '매우 반대'라는 답변은 10.5%를 기록한 반면 '매우 찬성'은 2.3%에 그쳐 반대의견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의견의 경우 도시지역인 광주가 42%로, 농·어촌지역으로 분류되는 전남의 35.3%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견해=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 57.5%를 기록했다.

특히 '매우 반대'라는 강한 반대의견이 20.3%로, 2.7%를 차지한 '매우 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응답자는 24.3%로, 반대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는 의견은 14.7%였다. 이명박 정부의 영어공교육 강화방침인 몰입식 교육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관계 전망=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37.9%를 차지했으며, '지금보다 더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34.8%였다.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감을 표시한 응답자는 13.9%에 그쳤다. 12.4%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호남인들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남북관계를 그리 밝게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戊子年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신양파크호텔 임직원 일동



Shin Yang Park Hotel
HOTELS & TOURS CLUB

대표번호 : 062)228-8000
www.shinyangparkhotel.com